특별기고

주고 싶은 마음의 실천

정 기 연
주필

주고 싶은 마음을 사랑이라 하며 주면서 보람을 느낀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 젖을 주고 싶은 마음의 실천이다. 새들도 먹이를 입에 물고 둥지를 찾아와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 기른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은 이웃에 나눠주고 형제간에도 나눠 준다.

가을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계절이다. 농촌에서는 자기 집에서 생산한 과일을 이웃에 나눠주고 일가친척 집에도 보내는데 요즈음은 택배로 편리하게 보낸다. 농촌에 사는 부모는 생산된 과일, 곡식, 고구마, 참기름 등을 상자에 담아 서울에 사는 자녀의 집에 택배로 보낸다.

택배를 받은 자녀는 받는 기쁨을 느끼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주고 싶은 효심이 발동해 전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녀도 부모님께 선물을 사서 택배로 보낸다. 이처럼 주고 싶은 마음의 실천은 물류를 이동시키며 택배가 사랑의 물류가 오가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주고 싶은 마음을 사랑이라 하는 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부모의 자식 사랑 자식의 부모 사랑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오고 가는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다. 형제가 따로 살고 있었는데 가을 추수를 한 후 형은 동생을 생각해서 볏섬 한 가마니를 아우 집 볏섬 가리에 갖다 올려놓았으며, 동생도 형의 삶이 어려우니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볏섬 한 가마니를 형님 볏섬 가리에 올려놓았다. 이튿날 형제가 볏섬 가리를 세어보니 어제와 같아 같은 생각으로 밤마다 볏섬 가마니를 가지고 오고 가다가 볏섬 가마니를 든 형제가 도중에서 서로 만나 볏섬 가마니를 내려놓고, "형님이었구먼요", "아우였군" 하며 서로 부둥켜안았으며 주고 싶은 마음을 실천한 두 형제를 달님이 웃으며 비춰주었다는 이야기다.

형제의 서로 주고 싶은 마음은 형제의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며 주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도와줄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사랑을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는 것이 효도다. 주고 싶은 마음을 길러 서로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으로 효도하는 자녀로서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이 됐으면 한다.

인간의 즐거움은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베푸는 즐거움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삼락이라 한다. 교육삼락은 아낌없이 주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이다. 따라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나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사람들은 가진 자가 되기 위해 온갖 고생과 노력을 하지만,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도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교육 삼락에서 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교육삼락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며, 준 것을 받은 자는 받은 것을 다시 주는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 사회의 미덕이다.

보람 있는 삶이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며, 내가 가진 것을 많은 사람에게 주고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이차적 목표이고 즐거움이며 보람이다.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진 부자는 일차적으로 성공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람 있게 주면서 즐거움을 느낄 것인가를 실천하는 삶이어야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큰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도움으로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도움을 받았으니 다시 갚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 내가 남을 돕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신 하느님의 뜻이다. 우리는 사랑할 때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한 삶이 된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자.

독자기고

고향, 내마음의 영원한 안식처

국 중 균
광주서부소방서 현장지휘팀장

고향 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정함, 그리움, 정이 넘치고 정감을 강하게 주는 말이면서도 정작 이것이 고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단어이다.

그러나 그리움, 잊을 수 없음, 타향에서 곧장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라는 면은 공통이다. 사람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한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생물학적인 탄생이며, 고향이라는 장소에서 태어난 것은 지리학적인 탄생이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시간이 동일하기에 자연히 어머니와 고향은 하나가 된다.

고향은 나의 과거가 있는 곳, 정이 든 곳이며, 공간, 시간, 마음 중에서 비중이나 우열을 논할 수는 없다. 살았던 장소와 오래 살았다는 긴 시간과 잊혀 지지 않는 점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고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어느 고을 어떤 지점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살았다는 시간을 제시할 수 있으면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각인각색으로 모습을 달리 할 수 있다.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농촌 인구는 줄고, 노동력은 노쇠해 크게 감소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농촌에는 노인과 아녀자만 남고 젊은이는 도시로 빠져나간 형편에 생산을 올릴 수는 없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향은 고향집·고향 마을·고향산천·고향 사람들로 나타나는 시골의 정든 모습이며, 고향에 살고 있다면 아름답게 보존하거나 훌륭하게 발전시킬 일이고, 객지에 있다면 자랑하며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고향 들녘에는 누렇게 황금벌판이 펼쳐지고, 가을 막바지에 결실에 있음을 직접 볼 수 있다.

고향 하늘은 언제나 청명하고 맑은 공기와 종달새는 하늘높이 나르고, 아버지가 지게에 나무를 지고 집에 오실 때면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수고로움을 알지 못하고 따뜻하게 아궁이에 불을 피우겠지 생각만 했던 일들이 생각난다.

나는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노래가사 말처럼 고향산천 생각만 해도 그리움과 정이 넘치고 현대의 바쁜 생활에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한곳, 부모님이 살던 곳을 생각하면 빠른 일상에도 분명 고향은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이며 노령화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고향에 모두가 응원한다면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발행·편집인	이가영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